

중독과 은혜 (2)

지난번 글에서는 현대인은 수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으며, 중독은 우상이 되고, 우상은 곧 죄가 된다는 말을 했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러면 어떻게 이들 중독들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의지력이 함께 할 때 가장 효과를 낸다고 "중독과 은혜"의 저자는 주장한다. 어떤이들은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믿고 나는 아무일도 아니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많은 기적을 행하신다. 우리가 매일 깨고 일어나는 일 모두가 기적이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는 말만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조건 마술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의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그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은혜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저자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그리고 창조물에게 힘차게 쏟아부으시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치유와 밝은 소망의 빛과, 화해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시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우리가 무시하고 거부할 수도 있고, 달라고 구할 수도 있고, 단순히 받아드릴 수도 있는 선물이다. 이는 흔히 우리의 의도나 과실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선물이다. 은혜는 보이지 않는 보혜사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절대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은혜가 주어졌을 때는 오로지 감사와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응답이 된다. 은혜는 성령의 바람처럼 가고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부는 우리가 짐작으로 소유할 수 없고, 영원히 자유한 것이다. 이 은혜는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를 향해 우리가 마음을 열 수는 있지만 지배/통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은혜도 우리를 찾지만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그러나 성 어커스틴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지만 우리의 손에는 너무 많은 것이 가득 차있어서 그 선물을 받을 수 없다" 말했다. 우리의 손은 우리가 중독된 물질로 가득차 있다. 우리의 마음, 정신, 관심사 모두가 중독으로 맥혀있다. 우리의 중독물질들은 은혜가 자유로히 흘러들어올 수 있는 우리마음의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손과 마음을 가득 채운 중독물질들을 나무랄 일이나니라 그런 것들에 착 달라 붙어, 그들을 꼭 붙잡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버린 바로 우리들의 탐욕을 반드시 기억할 일이다."이라고 피력한다.

은혜는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고통을 나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태워, 무한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제물이다.

예수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풍성한 은혜와 용서에 이르는 길은 "내가 길이니 나를 따르라. 내가 네게 생수를 주마.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무거운 짐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신대로 자신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신다. 예수그리스도는 인류를 하나님께 화해시키고, 하나님을 떠나 사랑에 불구가 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심호한 사랑의 선물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목표를 잃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 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중독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화신).

성경에서는 물, 특히 흐르는 "생수"가 "은혜"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영의 생수는 가장 매마르고 죄많은 영들 안에 사랑이 자라도록 하는 근원이 된다. 시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마르고 곤핍한 땅 같이 갈급하니이다"라고 한다 (시 42: 1; 63:1)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한다: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떨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늪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사 35:6-7). 내가 자산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식당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사 41-18- 20).

이사야는 이어,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와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사 51: 3).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 58:11)고 은혜를 약속하신다.

에덴은 동산으로서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상징의 동산이 된다. 에덴은 우리의 고향이며 운명이며, 우리의 본향이며, 약속의 땅을 상징한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긍정적인 안전을 체험할 것이다. 중독의 우상적이고 텅빈 메마른 땅은 은혜로 인해 자유와 사랑의 동산으로 변화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은혜는 하나님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근원이다; 은혜는 너무도 풍성하게, 욕심없이, 끊임없이 흐르는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의 표현을 능가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를 깊이 사랑하는 부모로 표현하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다. 어머니의 사랑을 다 이해하기 어려우나 어머니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같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부모들은 자식을 먼저사랑하신다. 왜냐하면 그사랑은 선재(preexisting)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같은 것이다. 부모들이 자연적으로, 천연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먹이고 따뜻하게 입히며 돌보는 것 처럼 하나님도 자연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사랑하신다. 우리의 자유를보호하고 우리가 이를 그리워하도록하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주시는 은혜가 있다. 자녀들이 실수하고 실망할 때 아무런 특별한 이유없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껴안아 주는 부모처럼 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있다. 하나님도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도,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 부모들이 항상 자식을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젖을 떼고 자식이 정체성을 하는 것 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존하고 싶은데 자라서 스스로 서서 결정하도록 하신다. 즉 어려움 속에도 은혜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감으로 축복하신다. 그 책임감 속에는 존엄성이 있다.

은혜에 응답

은혜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의 사랑에 화답하고 응답하는 영역이 있다. 화답하는 은혜란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머니를 즐겁게 해 드리기를 원하고 어머니는 특별한 부드러움으로 화답하는 것과 같다. 어머니의 화답은 아이의 실제행동에 대한 화답이 아니라 단지 그런 행동을 자아낸 단순한 사랑에 대한 화답이다. 이것이 가장 부드러운 사랑을 꽃피우는 일이다. 그러나 벌과 구속으로 아이들을 지배하는 부모들을 고려할 때 부모자녀의 비유는 불완전하다. 인간 부모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훈련하는 방법으로 어느정도 지배한다. 하나님은 이와 똑 같이 행동하시지는 않는다. 구약에 인간을 심판하는 기사가 있고, 신약도 심판에 대해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지만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은 지배/통제가 아니다. 예외없이 하나님은 인간의 귀중한 자유를 보존,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사 57:16 에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곧비할까 함이니." [이는 마치 부모가 자식이 마음 상할까봐 영구히 노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명령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여하한 반응을 하도록 지배하지 않으신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하는 선택에 대해 홀로 책임진다.

우리속에 내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입는 모든 상처,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애쓰시고, 소망하시고, 우리와 함께 창작하신다. 우리의 분노와 슬픔과 기쁨의 한방울 까지 우리와 나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떨어질 수 없는 가까운 관계에 계시다. 그러나 그 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창조하시고, 지탱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을 자지셨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이해를 능가한다.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화신) 이 불가사이의 신비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사랑으로 나누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승리한다. 그래서 18 세기의 John Newton 은 하나님 은혜 찬송 (나같은 죄인 살리신) 을 작사했다.

은혜를 나누며 살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은혜를 벌거나 성취하거나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속임수와 유혹해서 얻어내는 것도 아니다. 은혜는 그저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절로 가능하지않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의 집착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방심하는 동안에, 수단과 방법이 잠시 쉬는틈에, 혹은 다른곳에 정심이 팔려있는 순간에 우리가 오는 가장 의미있는 순수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갈망하고, 주시라고 기도할 수는 있고, 우리의 손을 비워놓아야한다. 진정한 선물인 은혜를 구하는 일은 매우 단순하다. 조건을 붙이거나 거래를 하거나 조정함이 없이, 순수하게 우리의 염원을 아뢰면 된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로서 우리의 정직한 요청을 들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은혜를 갈망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려면 내가 집착하는 다른 모든 신들을 버려야한다. 은혜는 내가 만든 형식들을 위협할 것이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있는 은혜를 왜곡하거나 전적으로 부인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자신과 싸워야한다. 은혜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위협을 무릅쓰는 일이다. 은혜가 주는 권리는 치유, 모든 종류의 해방, 와전함과 사랑과 자유를 향해 전진하게 한다. 이는 육신적, 정신적 치유와 사회, 정치적 화해와 문화적 과학적으로 돌파하게 하고, 악으로 부터의 영적 구원, 종교적인 회개와 개종, 영적인 성장으로 인도한다.

은혜는 사랑이 싹트는 곳에는 어디든지 존재한다. 이런 때 은혜는 우리를 변화하기 시작하게 하고, 계속해서 변화하게 하고, 시간이 가면 그 변화를 키워가고, 우리가 독창적으로, 건설적으로 변화도록 힘을 실어준다.

하나님은 번개처럼 우리에게 마술을 행하고 사라지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안에 친밀하게 임재하면서 완전하고 자유하게 우리의 의지와 책임감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힘을 주신다. 은혜는 우리가 한번 받아 먹고 내길을 가게하는 약이나 방법이 아니다. 은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라고 항상 우리를 부르신다. 모든 해방은 지속적인 주의를 필요로 하고, 모든 치유는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모든 해방은 추적 (follow-up)을 요구하고, 모든 개종은 믿음의 성장을 요한다. 우리가 이 같은 지속적인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책임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주어지는 힘을 무시한다면 우리의 해방은 무익한 것이 될 것이다.

해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해방함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의 역할을 누누히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금욕주의와 개종에 있어서 은혜의 역할도 강조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함을 향한 모든 진정한 움직임은 은혜와 인간의 의지 둘다 필요로 한다. 이 둘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측면에서만 본다면 하나님의 행동과 우리의 화답에 근거해서 설명이 가능해 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내재측면에서만 고려한다면 우리의 개성형성과 진정한 자신의 발견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토대로 심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질 것이다.